

## 백제 미륵사지 석탑 사리공양품의 보석과 교역

International Trade and Gems Found in the arra Deposits in the Mireuksa Stone Pagoda of Baekje

---

저자 (Authors)	신숙 Shin Suk
출처 (Source)	<a href="#">미술사연구 (31)</a> , 2016.12, 29-57(29 pages) <a href="#">Misulsa Yeongu : Journal of Art History (31)</a> , 2016.12, 29-57(2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미술사연구회</a> Association Of Art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85818">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85818</a>
APA Style	신숙 (2016). 백제 미륵사지 석탑 사리공양품의 보석과 교역. 미술사연구(31), 29-5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1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백제 미륵사지 석탑 사리공양품의 보석과 교역

申淑\*

I. 머리말	IV. 원석의 산지와 보석 장식
II. 미륵사지 석탑 사리구와 보석	V. 맺음말
III. 보석의 의미와 상징	

## I. 머리말

전라북도 익산의 백제 미륵사지에는 석탑 1기가 남아 있고 현재는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탑의 해체 과정에서 지난 2009년 1월 14일, 心柱石에 봉안된 사리장엄구와 金製舍利奉迎記가 발견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사찰과 석탑의 조성 배경을 알려주는 명문을 통해 639년이라는 제작 연대를 알 수 있고 동반된 출토 유물도 모두 23건 9,900여 점에 이르고 있어 백제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寶庫로 평가된다. 출토 이후 미륵사지 유물의 현황과 전반적인 연구성과를 정리한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역사, 고고학, 미술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sup>1)</sup>

미륵사지 석탑에서는 사리장엄구와 함께 많은 수량의 공양품도 수습되었다. 공양품은 사리 봉안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헌납한 것으로, 평소 귀중하게 간직했던 물품이나 財貨로 추정된다. 그 중에는 수정, 진주, 마노, 옥, 호박과 같은 보석류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존에 출토된 사례가 거의 없는 진주 800여 점이 수습되었고 수정도 62점이 사리호 안에서 발견되어 주목된다. 미륵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진주와 수정을 비롯한 보석류에 관해서는 본격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

1)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특별전』(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09); 『백제 불교문화의 寶庫 미륵사』(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3);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4).

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러 종류의 보석이 석탑에 다량으로 납입된 연유나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름다움과 희소성을 갖춘 보석은 이른 시기부터 권위와 신분을 표시하거나 종교적 위엄과 이상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었다. 최고 지배 계층의 소비품이나 종교 관련 물품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원석을 가공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시 선호된 공예 재료와 기법의 발전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원석이 산출되는 지역의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국제 교류를 알려주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륵사지 사리공양품에 나타나는 보석 장식의 의미와 상징, 국제 교역 등을 고찰하여, 한국미술사에서 차지하는 백제 공예의 위상을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II. 미륵사지 석탑 사리구와 보석

사리구는 미륵사지 석탑의 심주석 상면 중앙에 자리한 방형 사리공(가로 25cm, 세로 25cm, 깊이 26.5cm)의 정중앙에 놓여있었다(圖 1). 사리공 안의 바닥면에는 유리판을 깔고 그 위에 다양한 유물을 차례로 안치하였다. 먼저 청동합 6개를 놓고 그 사이 공간에 유리구슬을 채웠으며, 남쪽에는 銀製冠飾과 금판, 북쪽에는 직물에 싼 刀子 4자루를 놓았고 동쪽과 서쪽에도 각각 1자루와 2자루의 칼을 배치하였다.<sup>2)</sup> 금제사리봉영기는 남쪽 벽면으로 비스듬하게 두었으며, 앞뒷면의 명문은 사찰과 탑의 조성 내역을 담고 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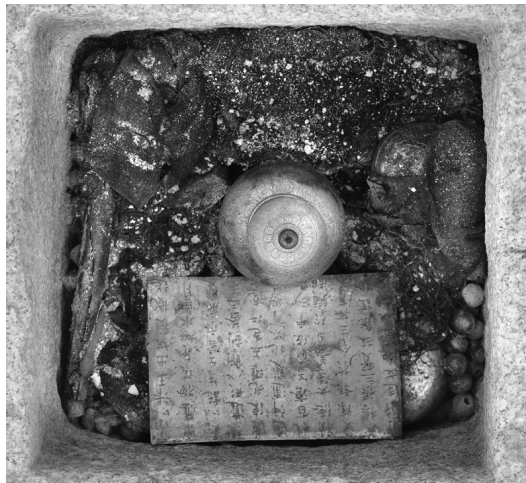


圖 1. 사리장엄 출토 상태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2014, p. 29)

2)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앞의 책(2013), p. 8.

봉영기의 앞면은 9자씩 11줄이 쓰여 있고 뒷면은 94자를 새겼으며, 앞쪽은 朱砂를 사용하여 글자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sup>4)</sup> 명문은 첫 번째로 사리의 불가사의한 신통변화를 언급하였고 다음은 왕후가 사찰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는 國王의 장수와 王后의 복을 기원하는 발원문이 담겨 있다. 기존에는 미륵사 창건을 후원한 왕비가 선화공주라는 『三國遺事』의 기록이 通說이었다. 그런데 봉영기를 통해 미륵사를 조성한 무왕의 왕비가 沙吒積德의 딸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왕비가 재물을 희사하여 가람을 세우고, 己亥年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모셨다는 구절을 통해, 명확한 제작연대를 시사하고 있다. 사리를 봉안한 639년은 무왕 40년으로 집권 말기에 해당하며, 그로부터 2년 후인 641년에 왕이 승하하게 된다. 발원문에 ‘대왕폐하의 수명은 산악과 같이 견고하고 치세는 천지와 함께 영구하여라’는 내용은 관계적인 수사였지만 왕실의 실질적인 바람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리장엄은 금동사리외호, 금사리내호, 유리사리호로 구성되었고 사리구 외호와 내호를 중첩한 사이 빈 공간은 각종 구슬로 가득 채웠다(圖 2). 사리공 안에서는 금제소형판과 금제 족집게, 금괴, 은제관식, 은제과대장식, 칼, 구슬류, 청동합 등 상당한 수량의 공양품도 발견되었다. 금제소형판은 백제시대 화폐의 기능을 가졌던 金鈔으로 모두 18점이 확인되었다.<sup>5)</sup> 그 가운데 3점은 명문이 새겨져, 사리봉안 의례를 지내는 과정에서 개인이 시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2점의 은제관식도 나술 이상 관인이 관모에 끼워 장식했던 물품으로 시주자의 신분을 알려주는 유물이다. 이처럼 많은 공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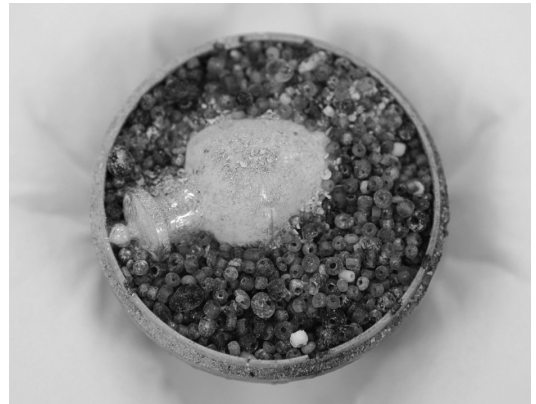


圖 2. 금동사리외호 개봉 직후 모습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2014, p. 47)

3) 사리봉안기의 原文과 해석은 김상현, 「미륵사 서탑 사리봉안기의 기초적 검토」,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9), pp. 137-158; 주보돈, 「미륵사지출토 舍利奉安記와 백제의王妃」, 『백제학보』 7호(백제학회, 2012), pp. 31-55; 정진원, 「익산 미륵사지 서탑 <金製舍利奉安記> 해독과 쟁점들」, 『한국어문학회연구』 58집(한국어문학회연구회, 2012), pp. 243-279 참고.

4) 미륵사 서탑 사리봉안기, 앞면, “竊以法王出世隨機赴, 感應物現身如水中月, 是以託生王宮示滅雙, 樹遺形八斛利益三千, 遂使光耀五行遊七, 遍神通變化不可思議, 我百濟王后佐平沙吒, 積德女種善因於曠劫, 受勝報於今生撫育萬, 民棟梁三寶故能謹捨, 淨財造立伽藍以己亥.” 뒷면, “年正月廿九日奉迎舍利, 願使世世供養劫劫無, 盡用此善根仰資大王, 陛下年壽與山岳齊固, 寶曆共天地同久上弘, 正法下化蒼生又願王, 后即身心同水鏡照法, 界而恒明身若金剛等, 虛空而不滅七世久遠, 並蒙福利凡是有心, 俱成佛道.”

5) 박남수, 「백제 대외교역상의 金鈔과 益山」, 『사학연구』 98호(한국사학회, 2010), pp. 167-194.

을 함께 매납하는 방식은 왕흥사지 목탑지 사리장엄이나 신라 황룡사지 목탑지와 분황사 등에서 확인되어, 삼국시대 공통된 양상으로 파악된다.

사리봉안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양품을 헌납하는 풍습은 중국의 문헌기록에서도 확인된다.<sup>6)</sup> 梁武帝는 東晉(317~418년) 慧達이 세웠던 長干寺 三層塔을 발굴한 후, 발견된 사리와 장엄구를 다시 안치했다고 전한다. 무제는 538년에 雙塔을 쌓은 후, 石函, 玉罌, 金罌으로 구성된 사리구를 새로 만들고 내함에는 사리와 손톱, 머리카락 등을 넣었다. 또한 王侯妃主와 백성이 보시한 금은, 귀걸이, 팔찌, 비녀 등도 탑 속에 함께 납입되었다. 현재 실물은 전하지 않지만 사리 장엄의 방식과 유행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비교해 볼 여지가 있다.

미륵사지에서 발견된 다양한 종류의 사리공양품 중에는 진주, 옥, 마노, 호박 등 보석이 포함되는데, 사리공 내부와 청동제 원통합에서 발견되었다. 청동합은 모두 6점이며, 세부 형태와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모서리가 직각이거나 둥글게 다듬어 만들었고 합 표면에는 두껍게 녹이 수착되었지만 일부에서는 금빛이 관찰되기도 한다. 합의 크기와 모양이 다르듯 내용물의 종류도 다채롭다. 두 개의 합에는 향분으로 추정되는 유기물이 있었고 다른 두 곳에는 금제 유물 소량과 직물, 목재 추정 유기물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지름 8.3cm, 높이 4.6cm인 가장 큰 합에서 진주, 호박, 곡옥, 유리구슬, 금제구슬, 금판, 金製耳飾 등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으며(圖 3), 여섯 번째 합에도 금제구슬, 금괴, 유리구슬, 진주 등이 들어 있었다.



圖 3. 청동합 출토 유물.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2014, p. 94)

6) 『南史』卷78 列傳 第68 夷貊上, “扶南國……武帝……至四年九月十五日, 帝又至寺設無礙大會, 豎二刹, 各以金罌, 次玉罌, 重盛舍利及爪髮內七寶塔內, 又以石函盛寶塔, 分入兩刹刹下, 及王侯妃主百姓富室所捨金銀環釧等珍寶充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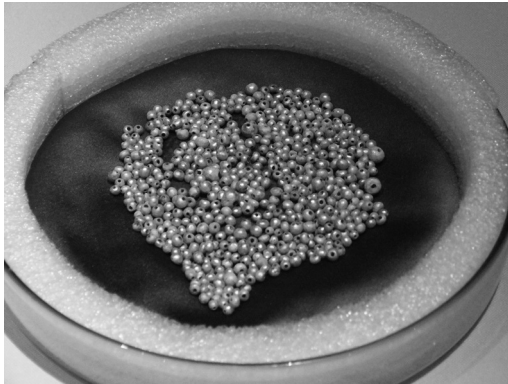


圖 4. 진주, 백제, 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 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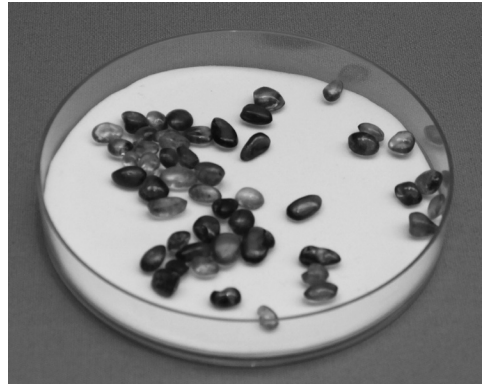


圖 5. 수정, 금동사리외호, 백제, 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진주는 두 개의 청동합에서 각각 630여 점과 140여 점이 나왔으며(圖 4), 마노는 17점, 호박과 곡옥은 각각 1점이 확인되었다. 비취색 곡옥은 금모를 씌워 장식하였고 구멍이 크게 뚫려 있다. 또한 사리내호에서 管玉과 타원형 마노 2점이 더 발견되었고 사리공 안에서는 짙은 붉은색을 띠는 호박 2점이 추가되었다. 진주도 사리공 안에서 32점이 더 확인되는데, 일부는 청동합 외면에 부착된 채로 수습되어, 보고서에서는 다른 유리구슬과 함께 사리호와 봉영기를 장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sup>7)</sup> 청동합 안의 진주는 지름이 0.3~0.4cm이며, 사리공에서 출토된 것은 0.5~0.8cm 내외로 약간 더 크다. 광택을 잃은 채 박락된 경우도 많으며, 모두 가운데 구멍 뚫린 모양이다.

사리공 내부나 청동합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금동사리외호 안에서는 수정이 50점 확인되었다(圖 5). 사리호 안에는 구멍 뚫린 유리구슬이 충전제 역할을 하듯 가득한데, 수정은 작은 알갱이로 다듬기만 한 채 비정형의 천연석 그대로 수습되었다. 금사리내호에서 발견된 것 중에도 수정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 사리호 안에서만 발견된 점과 구멍 뚫지 않은 외형을 고려하면 단순히 유리구슬과 같은 용도로 보기에는 의문이 남는다.

미륵사지 석탑의 보석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기존에 출토된 전례가 거의 없는 진주로, 처음 발견된 당시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보고서에도 향후 성분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를 기대할 뿐 상징 의미나 산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막연히 국내에서 진주가 생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었을 가능성만 논한 바 있다.<sup>8)</sup> 다음으로 많은 수량이 납입된 수정도 관심을 끄는데, 특별한 형태나 장식 없이 모두 사리

7)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앞의 책(2014), pp. 142~143.

8) 주경미,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의 구성과 의의」, 『백제연구』 59집(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4), p. 87.

호 안에 넣었던 연유가 궁금하다. 삼국시대 수정이 불교미술의 재료로 선호되었는지 또는 산출지에 대해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사리호 안의 수정과 공양품인 진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I. 보석의 의미와 상징

#### 1. 사리호 내부의 수정

미륵사지 사리의외호와 내호에서는 각각 50점과 12점의 수정이 발견되었다. 사리장엄구가 처음 확인된 당시 X선 촬영에서는 내함인 사리병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호에서 발견된 12점의 수정은 작은 쌀알 모양의 결정체와 함께 사리로 판단하였다(圖 6). 그러나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정밀조사에서 짙은 갈색을 띠는 사리병 파편이 확인되면서, 실제 봉안된 사리의 명확한 수량 파악은 유보되었다.

사리병은 비파괴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리체로 밝혀졌지만 구연부와 뚜껑 일부만 남아, 원래의 형태는 알 수 없다. 둥근 구슬모양의 뚜껑에는 아래로 꼭지가 달렸고 구연부 내부 지름은 0.41cm 정도로 조사되었다.<sup>9)</sup> 구연부의 지름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내호에서 수습된 것 중에서 병에 봉안할 수 있는 사리는 가장 작은 1과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무왕 2년(601)에 수나라에서 숭리 1과를 청해 가져왔다는 기록이 주목받기도 했다.<sup>10)</sup> 그렇다면 사리내호에 넣었던 수정은 어떠한 용도였는지 의문이 남는다. 사리내호의 12점은 무색이거나 보랏빛, 푸른빛이 감도는 색상이며, 대체로 지름 0.7cm 이하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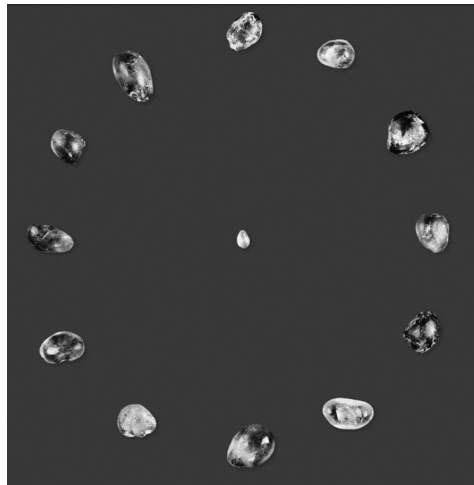


圖 6. 사리, 금사리내호, 백제, 전라북도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2013, p. 43)

9)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앞의 책(2014), p. 133.

10) 道宣撰, 『廣弘明集』卷 17(T2103.S2.0217a), “高麗百濟新羅三國使者將還 各請一舍利 於本國起塔供養 詔並許之.”

로 구멍을 뚫거나 세심하게 가공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사리호 안에 넣은 다른 구슬이 대부분 유리제품이고 가운데 구멍이 있는 형태와도 차이가 있어, 충전재로 사용된 것과는 다른 용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앞서 발굴된 부여 왕흥사지 사리공양품에서 나온 수정이 투명 한 색상이면서 모두 구멍 뚫린 모양인 점도 구별되는 특징이다.

미륵사지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신라 분황사 모전석탑에서도 비정형의 수정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특별한 외형으로 가공되지 않았다.<sup>11)</sup> 단순한 공양품일 수도 있지만 사리구 안에 넣었고 다른 물품과 달리 용도가 불분명한 형태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진 봉안품일지도 모른다. 후대의 기록이지만 不空이 746~774년경 漢譯한 『如意寶珠轉輪秘密現身成佛金輪呪王經』에 나타나는 사리의 개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sup>12)</sup> 즉 사리가 없는 경우에는 금, 은, 유리, 수정, 마노, 파리 등 모든 보석으로 사리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리신앙이 깊어지면서 불탑에 봉안할 身舍利의 소비는 늘어났고 부처의 유골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대체품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실제로 일찍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며, 사리 내함에 다양한 보석을 넣는 예는 인도에서도 다수 확인된다.<sup>13)</sup> 따라서 眞身舍利를 대신하여 수정을 납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라 감은사지 동탑에서도 모두 54점의 사리가 수습되었지만 사리병의 크기로 볼 때 0.1~0.2cm 정도의 작은 알갱이 10여 점만 넣을 수 있는 상태였다.<sup>14)</sup> 가장 안쪽에 들어가는 사리병이 아닌 내함에도 추가적인 사리 봉안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미륵사지 유물을 이해하는 데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정이 백제 불교미술에서 중요한 재료로 활용된 예는 『觀世音應驗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15)</sup> 貞觀 13년(639)에 大雷雨로 익산 帝釋精舍가 전소되었는데, 다행히 칠층탑 아래 사리장

11) 『朝鮮古蹟圖譜』3(朝鮮總督府, 1916), #1037~1039 참고.

12) 不空 譯, 『如意寶珠轉輪秘密現身成佛金輪呪王經』如意寶珠品 第3(T0961.190332c), “若無舍利以金銀琉璃水精馬腦玻梨衆寶等造作舍利 珠如上所用 行者無力者 即至大海邊拾 清淨砂石即爲舍利 亦用藥草竹木根節造爲舍利.”

13) 『シルクロード大文明展』(奈良國立博物館, 1988), p. 62, 도판 34 및 『고대불교조각대전』(국립중앙박물관, 2015), p. 33 참고.

14)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장엄』(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p. 71 각주 12 참고.

15) 『觀世音應驗記』, “百濟武廣王遷都枳慕蜜地新營精舍以貞觀十三年歲次己亥冬十一月天大雷雨遂災帝釋精舍佛堂七級浮圖乃至廊房一階燒盡塔下礎石中有種種七寶亦有佛舍利唾水精瓶又以銅作紙寫金剛波若經貯以木漆函發礎石開視悉階燒盡唯佛舍利瓶與波若經漆函如故水精瓶內外徹見蓋亦不動而舍利悉無不知所出六箇悉見於是大王及諸官人倍加敬信發即供養更造寺貯焉.” 중국 六朝時代 陸杲 등이 지은 『觀世音應驗記』는 京都 青蓮院에 전하는 鎌倉時代 寫本을 통해 내용이 알려졌다. 마키타 타이료(牧田諦亮), 『六朝古逸觀世音應驗記の研究』(平樂寺書店, 1970), p. 60; 黃壽永, 『百濟帝釋寺址의 研究』, 『韓國의 佛敎美術』(同和出版社, 1974), pp. 128-139; 송일기, 『京都 青蓮院藏 『觀世音應驗記』所收 百濟記事의 檢討』, 『서지학연구』 30 집(한국서지학회, 2005), 129-149 참고.

엄 일괄 유물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여러 종류의 七寶와 함께 佛舍利, 수정병, 『金剛般若經』 등을 모신 칠함(七寶函)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 사리를 담은 내함이 수정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안팎이 관통할 정도로 투명하고 안에 있는 사리가 보일 정도였으니, 백수정이었을 것이다.

수정으로 사리기를 만든 경우는 인도에서 원류를 찾을 수 있다. 護佛 정책으로 유명한 마우리아 왕조 제3대 아쇼카왕(Aśoka, 阿育王)은 기원전 3세기경 根本八塔의 사리를 꺼내 分舍利한 후, 팔만 사천 개의 탑을 건설하였다. 당시 각 탑에 봉안한 사리장엄에 관한 기록 가운데, 산스크리트어본 『아쇼카바다나(Aśokāvadāna)』에는 금, 은, 묘안석, 수정으로 상자를 만들고 항아리에 사리를 담아 안치했다고 전한다.<sup>16)</sup> 5중 용기로 겹겹이 감싸 사리를 장엄하였고 그 중에 수정제 사리함이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쇼카왕 때에는 팔만 사천 개의 사리구를 동일한 양식으로 제작하여, 각지에 전파했기 때문에 이후의 사리 장엄 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실물로 전하는 수정제 사리기는 인도 중부 비디샤(Vidisha) 남쪽 지역의 유적인 보즈푸르(Bhojpur) 제 2탑에서 발견되었다. 기원전 2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사리기는 맑고 투명한 재질의 수정을 깎아 스투파 형태로 만들었다(圖 7). 파키스탄 탁실라(Taxila) 제 32호탑에서 발견된 사리구 중에도 수정제 기물이 포함되었다. 완전한 모습으로 수습되지는 않았지만 수정제 사리기와 盤이 확인되었다.<sup>17)</sup> 역시 양질의 수정을 사용하여, 수준 높은 기술력으로 기물을 완성하였다. 수정제 사리기는 중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반면 인도에서는 다수 유래를 찾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백제 이후 통일신라에도 지속적으로 제작되는 점이 주목된다.



圖 7. 〈수정 사리기〉, 인도 Bhojpur 제2탑,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

<sup>16)</sup> John S. Strong, *The Legend of King Aśoka: A Study and Translation of the Aśokāvadāna* (Motilal Banarsidass Publ., 1989), pp. 219, 258, 265.

<sup>17)</sup> 『佛舍利と寶珠』(奈良國立博物館, 2001), p. 17 도판 9 참고.

사리공양품 중에 독특한 수정제 유물은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발견된다. 원반형 수정은 한쪽에 손잡이와 같은 돌기가 있는 돋보기 모양이며, 불을 일으키는 火珠로 추정된다(圖 8). 水精珠의 漢語名은 산스크리트어인 불의 보주(Agnimani)에서 유래된 것으로, 중국에서는 불을 피우는 도구인 수정주를 인도에서 비롯된 물품으로 인식하였다.<sup>18)</sup> 漢代 發火具는 금속으로 만든 오목형 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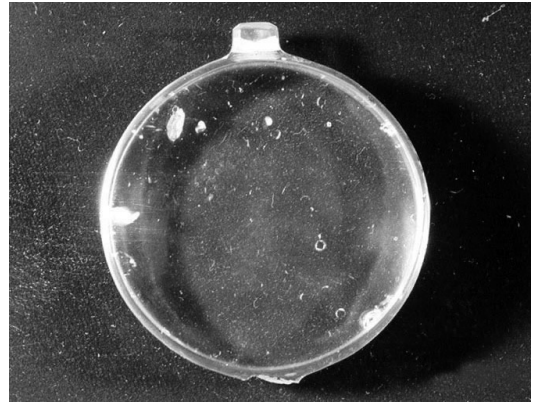


圖 8. 수정(火珠), 경상북도 경주 분황사 석탑, 국립경주박물관

인 陽燧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정제 火珠는 새로운 異國의 기물이었던 것이다.<sup>19)</sup> 貞觀 4년(630) 林邑國에서 唐의 太宗에게 수정 火珠를 헌상한 기록을 보면, 크기는 계란과 같고 태양 빛에 불쏘시개 나무를 두면 불이 타오른다고 설명되어 있다.<sup>20)</sup> 중국에서 금속제 陽燧와 함께 수정제 火珠를 사용한 상황이 신라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삼국시대 수정관련 기록과 현전 유물을 살펴보면, 사리거나 일상 기물은 주로 백수정을 활용하여 용도에 적절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미륵사지 사리호 내부의 수정은 비정형으로 간단히 다듬기만 하였고 색상도 보랏빛이나 푸른빛을 띤 다양한 원석이 포함되어 있다. 희소성이 높은 자수정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가치가 높았고 진귀한 보석이 사리 대체품으로 봉안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사리공양품, 진주

진주는 貝類에서 산출되는 유기질 보석으로, 별도의 연마 과정 없이도 아름다운 빛과 색을 얻을 수 있어 고대부터 진귀한 장식물로 선호되었다. 19세기 말, 일본에서 진주 양식이 성공하기

18) Edward H. Schafer, *The Golden Peaches of the Samarkand*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p. 237.

19) 양수는 火鏡으로 陽符 또는 金燧라고도 부르며, 예부터 불을 얻는데 사용한 기물이다. 『周禮』秋官司寇, “司烜氏, ……掌以夫遂取明火於日.”; 李時珍, 『本草綱目』上 水部第五卷, “高堂隆云 陽燧一名陽符 取火於日.”

20) 『舊唐書』卷197, 列傳 第147, 南蠻 西南蠻 林邑國, “貞觀初 遣使貢馴犀 四年 其王範頭黎遣使獻火珠 大如雞卵 圓白皎潔 光照數尺 狀如水精 正午向日 以艾蒸之 即火燃.”

전까지 자연에서 얻는 최고의 보석으로 오랜 기간 자리하였다. 미륵사지 유물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진주 관련 유물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sup>21)</sup>

眞珠는 蠙珠나 明珠, 또는 珍珠라고도 불리며, 고대 문헌 중에는 明珠로 기록된 예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後漢의 班固가 편찬한 經書에는 바다에서 明珠를 얻는다고 설명하였으며,<sup>22)</sup> 桓譚은 『新論』에서 바다거미를 가르면 영롱한 명주가 드러난다고 보았다.<sup>23)</sup> 또한 老子의 『河上公章句』에도 明珠가 조개 안에 있다고 서술하였다.<sup>24)</sup> 明珠를 바다의 조개에서 얻는 산물로 인식하였으며, 蚌珠라고도 하는 진주임을 알 수 있다. 明珠가 중국 漢代부터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같은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三國史記』를 살펴보면, 그와 같은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백제 毗有王이 신라에 훌륭한 말과 흰색 매를 선물로 보내자, 訥祗麻立干은 黃金과 明珠로 답례하였다고 전한다.<sup>25)</sup> 또한 일본은 백제 腆支王에게 夜明珠를 헌상하였으며, 그것을 보고 優禮로 사신을 대접하였다는 내용도 기록되었다.<sup>26)</sup> 夜明珠라는 언급은 후대 『高麗史』에서도 보이는데, 탐라 句當使가 올린 진주를 보고 사람들이 夜明珠라고 불렀으며, 별처럼 반짝인다고 하였다.<sup>27)</sup> 따라서 우리나라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明珠는 진주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조선시대에도 같은 용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sup>28)</sup>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진주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완벽하게 구형을 갖춘 것은 적은 편이며, 모두 가운데 구멍 뚫린 모양으로 꿰어서 장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형태의 유리가 보통 목걸이로 제작된 것을 감안하면 같은 용도로 쓰였을 것이다. 화려한 진주목걸이의 전형은 중국 隋代 유물에서 확인된다(圖 9).<sup>29)</sup> 공주였던 李靜訓은 608년에 매장되었고 陝西省 西安의 고분에서 금과 진주 등 각종 보석으로 만든 목걸이가 출토되었다. 일정하게 구형을 갖춘 진주 알갱이를 금으로 만든 난집에 끼워 넣어 장식하였다. 금과 진주, 붉은색과 푸른색의 보석, 백수

21) 신숙, 「한국 미술에 보이는 보석재료와 장식」, 『금은보화』(삼성미술관 리움, 2013), pp. 142-143.

22) 班固, 『白虎通德論』 卷5 封禪, “江出大貝 海出明珠”

23) 桓譚, 『新論』, “海蛛未剖 則明珠不顯”

24) 老子, 『河上公章句』 道經 體道, “明珠在蚌中 美玉處石間”

25)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第3 訥祗麻立干, “十八年, 春二月, 百濟王送良馬二匹, 秋九月, 又送白鷹, 冬十月, 王以黃金明珠, 報聘百濟.”; 卷25 百濟本紀 第3, 毗有王, “八年, 春二月, 遣使新羅, 送良馬二匹, 秋九月, 又送白鷹, 冬十月, 新羅報聘以良金明珠.”

26)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 第3 腆支王, “五年, 倭國遣使送夜明珠, 王優禮待之”

27) 『高麗史』 卷9 世家 第9 文宗 己未 33年(1079), “冬十一月……壬申 耽羅句當使尹應均獻大眞珠二枚光耀如星時人謂夜明珠.”

28) 진주를 明珠로 부르는 예는 조선시대에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주로 詩語에 등장하고 대체로는 眞珠라고 부르며, 때로는 蠙珠로 기록하였다. 韓致胤, 韓鑣書 編, 『海東釋史』 卷49, 藝文志3, 詩3 本朝下, 李達, “敕鈿寶月明珠綴 腰帶盤雲瑞錦囊”, 鄭斗卿, 〈青螺杯歌〉, “巴陵許侯自奇士 素抱磊落不羈之雄才 海上相逢與我飲 勸酒酒盛青螺杯 海蚌明珠照海月 晴天彩虹光明滅.”



圖 9. <보석장식 목걸이>, 隋 608년, 中國 陝西省 西安 李靜訓墓

정 팬던트 등이 어우러져, 왕실 여인의 아름다운 장신구로 손색없는 외형이다. 진주는 대부분 원석 그대로를 사용하여 감장기법으로 장식되었기 때문에 미륵사지 출토품과는 차이가 있다. 구슬을 꿰지 않는 방식으로도 목걸이가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진주는 머리 장신구나 冠飾에도 사용되는 보석이였다. 신라의 기록을 보면 ‘釵禁刻鏤及綴珠’라고 하여 비녀를 장식하는 방법으로 ‘綴珠’를 언급하였다.<sup>30)</sup> 이를 옥으로 꾸민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보통 玉과 珠는 구별하여 쓰는 경우가 많고 같은 문헌의 車騎 항목에서 ‘綴玉’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sup>31)</sup> ‘綴珠’는 옥과 다른 보석으로 판단된다. 興德王代 금제규정이 주로 외래품 또는 사치품을 다른 점을 생각하면 진주일 가능성이 높다. 진주를 서로 엮어 장식한 비녀는 진골도 사용할 수 없는 왕실 여인의 전유물이였다.

진주로 꾸민 관식은 唐 高祖의 5대 자손인 李儼 공주 고분 출토품을 참고할 수 있다.<sup>32)</sup> 공주의 冠은 터키석, 호박, 마노, 진주 등 여러 종류의 보석을 활용하여, 호화로운 왕실 공예품의 전형을 보여준다. 진주는 난잡을 만들어 감장하거나 구멍을 뚫어 서로 엮어 늘어뜨린 모습이다. 이러한 특징은 唐代 懿德太子墓 石槨線刻畫에서도 나타난다. 李重潤은 中宗의 아들로 神龍 2년(706)에 懿德太子로 追贈되어 건릉에 안장되었다.<sup>33)</sup> 고분의 후실 서쪽에 있는 家形石槨의 옆면에 두 명의 宮인이 선각으로 묘사되었으며, 머리의 관

29) James C.Y. Watt et al., *China: Dawn of a Golden Age, 200-750 AD*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2004), pp. 294-295.

30) 『三國史記』卷33 雜誌 第2 色服, “眞骨女;……梳禁瑟瑟鈿玳瑁, 釵禁刻鏤及綴珠, 冠禁瑟瑟鈿”

31) 『三國史記』卷33 雜誌 第2 車騎, “眞骨;……銜鈿禁金鏤石鍍金綴玉”

32) 李儼는 高祖 李淵의 5대 손녀로 25세인 開元24年(736)에 사망하였고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西安理工大学 曲江校 발굴 조사에서 고분이 확인되었다. 이후 2010년 공주의 시신 머리 위에서 발견된 冠飾이 복원 수리되어, 중국 北京 首都博物館《百工千慧: 中國文物保護科學和技術成果展》에 소개되었다.

33) 陝西省博物館, 乾縣文教局唐墓發掘組, 『唐懿德太子墓發掘簡報』, 『文物』(1972.7), pp. 26-32; 李星明, 『唐代墓室壁畫研究』(陝西人民美術出版社, 2005), pp. 60-62.

식을 자세하게 관찰하면 진주와 같은 구슬을 꿰어 테두리를 돌리고 드리개로 매단 것을 알 수 있다(插圖 1).

삼국시대 관련 유물은 아쉽게도 현전하지 않지만 관련기록이나 중국의 예를 참고하면, 미륵사지의 진주는 머리 장식으로 쓰인 것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또한 일부는 금제사리봉영기에 등장하는 왕후의 관식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자신의 후원으로 조성되는 석탑의 사리장엄에 공양품을 헌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유례없는 사리공양품 진주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왕비의 후원이라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插圖 1〉〈石槨線刻畫〉세부, 唐 706년, 中國 陝西省 懿德太子墓  
(출처: 孫机, 『中國古輿服論叢』, 文物出版社, 2001, p. 245)

## IV. 원석의 산지와 보석 장식

### 1. 산출지와 교역

수정과 진주가 어떻게 백제에 유입되어 미륵사지 석탑에 납입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보석의 산출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수정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비교적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sup>34)</sup> 인도는 고대부터 대표적인 수정의 산지였으며, 카슈미르(Kashmir)는 아랍의 광물학자들에게 수정이 풍부한 토지로 알려져 있었다.<sup>35)</sup> 불교에서 수정이 사리장엄구나 공양구의 주요 재료로 사용된 것은 지역의 산출 내역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수정 장식이 삼한시대부터 크게 유행하여, 고분의 부장품으로 다수 발견된다.

34) 현재 백수정의 산지는 미얀마, 미국,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등이 대표적이고 자수정은 인도, 스리랑카, 브라질, 러시아, 우루과이 등이 알려져 있다.

35) Berthold Laufer, "Optical Lenses," *T'oung Pao* vol. 16(1915), p. 212.

대체로 영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며, 다면구슬의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sup>36)</sup> 후대의 기록이지만, 경상도 지역에서 수정이 채굴된 내용은 『朝鮮王朝實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sup>37)</sup> 경상도 관찰사 安騰은 인근 지역에서 回回沙門 都老가 캔 수정 3백근을 바쳤고 경북 영주시를 뜻하는 順興府에서도 산출 내역이 확인된다. 조선시대 18세기 丁若鏞이 지은 『牧民心書』에도 각 고을에서 산출되는 보물의 목록을 인용하면서, 경주의 수정을 언급하였다.<sup>38)</sup> 지역의 특산물로 꼽힐 정도로 경주는 오래전부터 양질의 수정이 생산된 것이다. 따라서 삼국시대 수정의 주요 산지는 신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는 전라도에서도 수정을 얻었다는 내용이 전한다.<sup>39)</sup> 특히 茂長縣에서는 자색 수정을 캐냈다고 언급되었는데, 이곳은 현재 전북 고창군 무장면으로 백제의 上老縣을 일컫는다. 또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高山縣, 즉 현재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에서 수정이 산출된다고 기록하였다.<sup>40)</sup> 전라도 인근에서도 백수정과 자수정이 산출된 것으로 보아, 백제가 자국산 수정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고려 光宗 10년(959)에도 周나라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자수정과 백수정 2천과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sup>41)</sup> 국내에서 산출되지 않는다면 조달하기 쉽지 않은 수량이다. 문헌 기록과 출토 유물을 참고하면 수정은 국내에서 채굴되는 보석으로 추정되며, 백제는 자국산 또는 신라와의 교역을 통해 원석을 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주는 패류의 산물이기 때문에 바다를 인접한 곳이라면 얻을 수 있는 보석이다. 따라서 미륵사지 출토품이 국내산일 가능성부터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 文咨王 13년(504) 4월의 기록은 흥미롭다.<sup>42)</sup> 사신 芮悉弗이 北魏에 가서 世宗에게 이르기를, “小國이 帝庭

36) 정인성·양아림, 『원삼국시대의 수정제 다면옥』, 『한국 선사, 고대의 옥문화 연구』(북천박물관, 2013), pp. 151-172.

37) 『朝鮮王朝實錄』太宗 卷13, 7年(1407) 5月 3日, “得水精石於順興府小白山.”; 太宗 卷23, 12年(1412) 3月 29日, “慶尙道都觀察使安騰進回回沙門都老所採水精三百斤.”; 太宗 卷27, 14年(1414) 6月 20日, “前司正李有智進水精石及墨炭宥智來自江原慶尙道曰高城順興有水精石.”; 世宗 卷24, 6年(1424) 5月 27日, “慶尙道監司進順興府產出水精石.”; 世宗 卷27, 7年(1425) 2月 18日, “傳旨安東府使府所產水精石多採以進禁人私採.”; 世祖 卷34, 10年(1464) 8月 2日, “江原道觀察使進高城杆城等邑所出水精石.”; 燕山 卷15 2年(1496) 6月 9日, “命馳書于慶尙全羅江原監司採水晶如此樣者以進.”; 燕山 卷45, 8年(1502) 8月 27日, “江原道產出水晶曾命採進.”

38) 丁若鏞, 『牧民心書』 工典 6條 第1條 山林, “大典曰 諸邑寶物產處成籍 藏於工曹 本道本邑看守 所謂寶物者 慶州產水晶……黑山海中產石雄黃之類 是也.”

39) 『朝鮮王朝實錄』世祖 卷34, 10年(1464) 9月 16日, “全羅道觀察使採茂長縣紫色水精石以進命禁人採取.”; 燕山 卷45, 8年(1502) 7月 9日, “下書于全羅道觀察使崔漢源江原道觀察使朴元宗曰無瑕品好白紫水晶採取以進.”

40) 『新增東國輿地勝覽』卷34, 全羅道 高山縣 土産 참고.

41) 『舊五代史』卷138 外國列傳2 高麗, “周顯德六年, 高麗遣使貢紫白水晶二千顆.”; 王欽若 編, 『冊府元龜』卷972 外臣部 朝貢第五, “世宗顯德……六年……十一月高麗復遣使貢銅五萬斤白水精各二千顆.”

42)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 第7 文咨王, “十三年, 夏四月, 遣使入魏朝貢, 世宗引見其使芮悉弗於東堂, 悉弗進曰, 小國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扶餘, 珂則涉羅所產, 扶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賊是爲, 世宗曰, 高句麗世荷上獎, 專制海外, 九夷點虜悉得征之, 瓶罄鼎耻, 誰之咎也, 昔方貢之愆, 責在連率, 卿宜宣朕志於卿主, 務盡威懷之略, 搦披害羣, 輯寧東裔, 使二邑還復舊墟, 土毛無失常貢也.”

에 誠款을 맺자 累代에 정성을 다하여 땅에서 나는 產物로 朝貢을 어긴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黃金은 扶餘에서 나고 珮는 涉羅의 소산인데, 扶餘는 勿吉에게 쫓기고 涉羅는 百濟에게 併呑되었으니 이 두 물건을 王府(魏府)에 올리지 못한 것은 실로 兩敵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의례적인 외교적 수사이기 때문에 기록된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고구려가 탐라의 지배권을 잃었기 때문에 보석인 珮를 진상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sup>43)</sup> 당시 백제는 武寧王 4년(504)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그 전에 고구려가 제주도까지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이후 백제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앞서 東城王 20년(498) 8월에 耽羅가 貢賦를 바치지 않으므로 親征하여 武珍州 즉 광주까지 이르렀는데, 耽羅가 사신을 보내 罪를 청하므로 그만두었다는 기록이 보인다.<sup>44)</sup> 동성왕 이후 6년이 지난 무령왕 때에 백제가 탐라에 대한 일정 부분의 지배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기록에 언급된 珮는 마노로 해석되는데, 일부에서 전북에서 나는 진주로 보기도 하지만 뚜렷한 근거는 없다. 다만 탐라에서 진주를 채취한 내용이 고려와 조선의 문헌에서는 다수 확인되기 때문에 당시에도 백제가 제주도를 통해 진주를 얻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sup>45)</sup>

백제가 6세기 이후 제주산 진주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미륵사지 출토품이 모두 국내산 인지는 불확실하다. 고대 최상의 품질로 유명한 진주의 산지는 페르시아만 일대로 알려져 있으며, 이른 시기부터 동서무역의 주요 교역품이었다. 페르시아에서 진주는 하늘에서 떨어진 이슬이 달빛을 받고 조개로 들어가 생성된 것으로 인식하였다.<sup>46)</sup> 또한 중세 페르시아어인 ‘고흐르’는 진주를 뜻하는 단어로, ‘모든 것의 원소인 우주를 생성하는 원동력을 의미하였다.’<sup>47)</sup> 따라서 진주는 하늘이 빔어낸 신성한 산물이었으며, 天上의 세계를 상징하거나 天上의 神과 地上의 王

43) 『三國史記』에 언급된 涉羅를 耽羅, 즉 제주도로 보기도 하지만(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두계학술재단, 1999),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古地名 沙戶梁) 또는 신라(古地名 斯羅)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탐라일 가능성을 상정하고 논지를 전개하였다. 정구복·노종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역주 삼국사기』 3 주석편(상)(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1), p. 528 참고.

44)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 第4 東城王, “二十年, 設熊津橋, 秋七月, 築沙井城, 以扞率毗地鎮之,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45) 『高麗史』卷9 世家 第9 文宗 己未 33年(1079), “壬申耽羅勾當使尹應均獻大眞珠二枚光耀如星時人謂夜明珠; 『朝鮮王朝實錄』世祖 卷16, 5年(1459) 5月 9日, “全羅道珍島郡吏進螾珠一枚大如榛子; 『朝鮮王朝實錄』成宗 卷2, 1年(1470) 1月 20日, “濟州進眞珠傳曰初令濟州進眞珠者以其地在海中得之易也今聞責納民間甚苦之其論濟州牧使後勿如是隨所得封進; 『新增東國輿地勝覽』卷38 全羅道 濟州牧, 土産, 螾珠 참고.

46) Ammianus Marcellinus, trans. J. C. Rolfe, *History* vol.1(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p. 397. 道明三保子, 「ササンの連珠丹文錦の成立と意味」, 『深井晋司博士追悼シムクロード美術論集』(吉川弘文館, 1987), 주 12에서 재인용.

47) ‘고흐르’는 현대 페르시아어로는 寶石을 의미하지만 원래는 모든 것의 元素를 뜻하는 진주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林良一, 『シムクロード』(美術出版社, 1962), pp. 179-180.

을 연결하는 매개체였다. 사산조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상징물로 冠을 꾸밀 때 사용하였고 진주 장식이 있는 綬帶나 목걸이를 새가 물고 있는 銜鳥文도 크게 유행하였다.<sup>48)</sup>

중국은 自國에서도 진주가 생산되었지만 서역의 진주를 上品으로 인식하고 선호하였다. 漢武帝 때에는 고대 페르시아의 왕조인 安息, 즉 파르티아(Parthia)와 교통하게 되면서 明珠가 들어왔다고 기록하였다.<sup>49)</sup> 이후에도 페르시아가 보낸 선물 내역에는 진주가 자주 등장하며,<sup>50)</sup> 중국 사람들은 異國의 보석이 색상과 윤기가 뛰어나고 가치도 높다고 생각했다.

진주는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도 산출되었다. 먼저 중국 漢代는 廣東省 남서부 지역인 合浦郡이 주요 산지였다.<sup>51)</sup> 또한 四川省의 담수에서도 진주를 얻을 수 있었고 廣西省 北海와 欽州 일대도 생산지로 알려져 있다.<sup>52)</sup> 唐代 836년에는 신라와 발해, 거란 등 주변국과 진주를 교역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반포한 바 있다.<sup>53)</sup> 내용을 보면, 建中元年 즉 唐代 宣德王 1년(780)에 내린 칙서에 준한다고 하여, 이전에도 교역을 금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제로 규제 하기는 했지만 진주의 매매가 지속되었고 중국에서도 禁輸品일 정도로 가치가 높았던 상황을 알 수 있다. 백제도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진주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백제가 扶南의 산물을 보냈다는 『日本書紀』 欽明天皇 4년(543)의 기록도 주목된다. 부남은 크메르인들이 메콩강 하류에 세운 나라로 인도나 중국과 활발하게 교역했던 해양국이며, 현재 캄보디아 남부와 베트남 남부에 걸쳐 있었다. 백제가 부남의 재물을 일본에 보내줄 정도로 교역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채취된 진주가 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54)</sup> 林邑(베트남)의 국왕인 盧陀羅(Rudravarman II)가 중국에 ‘眞珠一百條’를 보냈다는 내용이

48) 신성한 의미를 지닌 진주 장식을 이동이 자유롭고 하늘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새가 가져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된 것이다. 신숙, 『統一新羅와 唐의 銜鳥文 研究』, 『미술사연구』 24호(미술사연구회, 2010), p. 64.

49) 『前漢紀』 孝武皇帝紀 6, “四年春正月……則通大宛安息, 自是之後 明珠文貝犀象翠羽之珍 盈於後宮 罷詠琪篋蒲萄龍文魚目汗血名馬”

50) 『舊唐書』 卷198, 列傳 第148, 西戎, “波斯國……自開元十年至天寶六載 凡十遣使來朝 并獻方物 四月 遣使獻瑪瑙牀 九年四月 獻火毛繡舞筵 長毛繡舞筵 無孔真珠……大曆六年 遣使來朝 獻真珠等.”

51) 중국 廣東省의 진주 관련 내용은 ‘合浦還珠’라는 古事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合浦는 베트남 북부인 交趾와 인접해 있는데, 古事를 통해 중국 廣東省과 베트남 북부에서 진주가 산출된 것을 알 수 있다. 『後漢書』 卷76, 循吏列傳 第66, “遷合浦太守 郡不產穀實 而海出珠寶 與交趾比境 常通商販 貿糶糧食 先時宰守並多貪穢 詭人採求 不知紀極 珠遂漸徙於交趾郡界 於是行旅不至 人物無資 貧者餓死於道 嘗到官 革易前敝 求民病利 曾未踰歲 去珠復還 百姓皆反其業 商貨流通 稱爲神明”; Edward H. Schafer, “The Pearl Fisheries of Ho-p'u,”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ol. 72, no. 4 (1952), pp. 155-168.

52) 李時珍, 『本草綱目』 卷46, 介之2, 真珠, “真珠出南海 石決明產也 蜀中西路女瓜出者是蚌蛤產……今出廉州”

53) 王欽若 編, 『册府元龜』 卷999, 外臣部 互市, “開成元年六月 淄青節度使奏新羅渤海將到熱銅請不禁斷是月京兆府奏准建中元年十月六日敕諸錦 罽綾羅縠織成細細絲布犍牛尾真珠銀銅鐵奴婢等並不得與諸蕃互市 又准令式中國人不合私與外國人交通買賣 婚娶來往 又舉取蕃客錢以產業奴婢爲質者重請禁之”

54)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四年……秋九月 百濟聖明王 遣前部奈率眞牟貴文 護德己州己婁與物部施德麻奇牟等 來獻扶南財物與奴二口.”

『唐會要』에 전하고 있어,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수량의 진주가 산출된 것을 알 수 있다.<sup>55)</sup>

외국산 진주가 백제에 들어온 직접적인 기록은 일본과 관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문헌에서 보듯이, 일본은 백제에 진주를 헌상하였고 신라 憲康王 때에도 사신을 보내면서 黃金 300兩과 明珠 10箇를 전해주었다.<sup>56)</sup> 백제는 腆支王 5년(409)과 毗有王 8년(434)에 국가 사이 선물 교역의 형태로 진주가 유입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사신이 보낸 진주를 받고 특별히 예우했다는 언급으로 볼 때, 5세기 초반에는 백제가 자국산 진주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sup>57)</sup> 이후 고려시대에도 쓰시마와 다자이후에서 진주를 보낸 기록이 다수 확인된다.<sup>58)</sup> 따라서 백제에서 소비했던 진주의 일부분이 일본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전하는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백제는 6세기 이후 탐라의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제주도의 진주를 확보했을 수 있다. 또한 신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을 통해서 유입되었던 정황도 파악되었다. 그런데 미륵사지 출토 진주가 전혀 없는 막대한 수량인 반면, 이전 시기 왕흥사지 사리장엄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왕흥사지의 공양품 중에는 옥벽이나 오수전, 상평오수전 등과 같은 중국과 직접 연관된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반면 미륵사지에서는 중국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양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sup>59)</sup> 중국산 진주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그렇다면 진주의 여러 유통 경로 중에서 동남아시아와 일본이 중요한 교역 상대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여 왕흥사와 익산 미륵사의 사리 공양품의 변화에 후원자의 영향은 없었는지도 생각해 된다. 왕흥사 사리장엄은 명문에 나타나듯 위덕왕이 주체가 되어 왕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sup>60)</sup> 반면 미륵사는 무왕의 왕비가 재물을 희사하여 가람을 세우고 사리를 모셨다고 기록되었다. 왕흥사와 미륵사의 사리장엄 모두 국가적 의식이었기 때문에 이면에 내포된 정치적 배경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명문에 기록된 후원의 주체와 성격이 공양품의 내용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55) 『唐會要』 卷98, 林邑國, “天寶八載 其王盧陀羅使獻眞珠一百條 沈香三十觔 鮮白氎 馴象二十隻.”

56)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 第11 憲康王, “八年夏四月, 日本國王遣使, 進黃金三百兩明珠一十箇”

57) 주 26 참고.

58) 『高麗史』 卷10 世家 第10 宣宗 丁卯 4年(1087), “日本國對馬島元平等四十人來獻眞珠水銀寶刀牛馬.”; 『高麗史』 卷10 世家 第10 宣宗 己巳 6年(1089), “日本國大宰府商客來獻水銀眞珠弓箭刀劍.”

59) 한송이, 「왕흥사지와 미륵사지 사리공양품의 재검토」, 『백제 사리장엄과 동아시아 불교문화(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5), pp. 68-70.

60) 김태식, 「부여 왕흥사지 昌王銘 사리구에 관한 고찰:舍利函 銘文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28호(한국문화사학회, 2007), pp. 39-66; 이도학, 「〈王興寺址 舍利器 銘文〉 分析을 통해 본 百濟 威德王代의 政治와 佛敎」, 『한국사연구』 142호(한국사연구회, 2008), pp. 1-31.

미륵사의 사리봉영기에는 ‘百濟王后佐平沙屯積德女’로 왕후의 가문이 언급되어, 사리봉안의 배경에 沙屯의 세력이 자리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沙屯은 砂宅이나 沙屯으로도 표기되며, 백제 大姓八族 중에서도 위세가 높았던 귀족이다. 그들은 사비시대에 중앙의 요직을 점유하면서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하였으며, 금강 하류지역인 서천 일대가 在地基盤이었던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sup>61)</sup> 그런데 서천 봉선리, 지산리, 추동리 등의 발굴 조사에서 환두대도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류와 도기류가 출토된 데 비해, 마구류는 거의 확인되지 않은 점이 주목되었다. 바다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출토 유물을 볼 때 沙屯 가문이 해양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해상 교역을 통해 유입된 진주를 왕비가 소유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미륵사 佛事에 헌납된 많은 수량의 진주가 왕후의 개인 물품이거나 그녀의 신분을 상징하는 장식품일 것이라는 가정을 제기할 수 있다.

미륵사지가 있는 익산은 교통의 요지로,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과 인접해 있다. 즉 서남해 연안해로를 따라 국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주요 교통로와 가까웠던 것이다. 사비 천도 후에 금강 하구의 웅포와 성당포는 서해와 내륙을 잇는 중요한 거점이었다.<sup>62)</sup> 금강은 부여, 서천, 익산의 중심을 흐르면서, 백제 국제 교역의 현장을 지켜봤을 것이다.

## 2. 보석의 가공과 장식

보석은 원석을 채굴한 후 가공과정을 거쳐야만 장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정은 일찍부터 가공기술이 발달하여 삼한시대 다면구슬의 형태로 만든 장식품이 크게 유행하였다. 미륵사지 출토 수정은 특별한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비정형으로 잘게 자른 모습이지만 왕흥사지 유물은 다면으로 마연하거나 구형으로 가공하여 백제 수정 가공 기술을 엿볼 수 있다. 또한 『觀世音應驗記』를 통해 병으로도 제작된 것을 살펴보았는데, 帝釋精舍에 봉안된 사리병은 현존하지 않지만 감은사 사리장엄구를 통해 원형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신문왕 2년(682)에 완공된 감은사와 제석정사의 기록은 40여 년 정도의 시차가 있을 뿐이고 阿非知와 같이 백제의 장인이 신라에서 활동한 예를 떠올려 보면 영향관계를 배제하기 어렵다.

61) 강종원, 「백제 沙屯勢力的 중앙귀족화와 재지기반」, 『백제연구』 45집(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7), pp. 19-36.

62) 강봉룡, 「고대~고려시대의 海路와 섬」, 『대구사학』 110집(대구사학회, 2013), pp. 1-33; 이병호, 「백제 사비기 익산 개발 시기와 그 배경」, 『백제연구』 61집(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5), pp. 69-105.

감은사의 동탑과 서탑의 수정제 사리병은 모두 목이 길고 몸체가 둥글다(圖 10). 크기가 적당한 수정 원석을 마련하고 중앙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은 다음 바깥 면을 연마하였다. 특히 동탑의 사리병은 구연부와 바닥 구멍 지름이 각각 0.6cm, 0.8cm이고 내부의 좁은 구멍 지름은 0.2cm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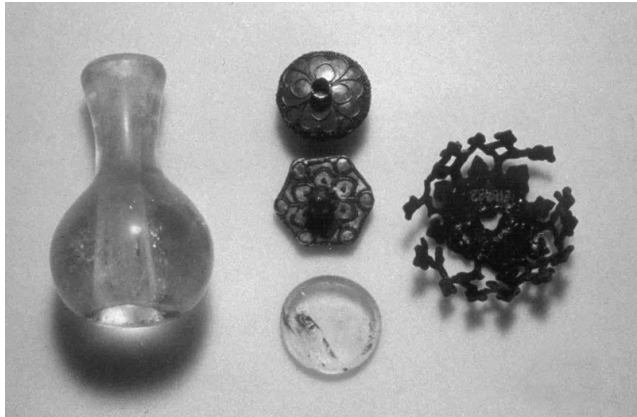


圖 10. <수정 사리병>, 통일신라, 경상북도 경주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국립중앙박물관

조사되었다. 수정 원석의 양쪽 끝에서 작업한 정황을 알 수 있다. 사리병은 위아래로 열린 구조이기 때문에 받침이 필수적인데, 수정제 원반형으로 만들었고 중심 부분에 약간의 홈이 있어 병을 세우기 적당하게 마무리했다. 서탑 사리병의 뚜껑은 금속선을 꼬아 올린 고깔 모양이고 동탑은 육각형 마개로 닫는 형태로 보주형 손잡이가 달려 있다.

서탑의 사리병은 발견 당시 받침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부가 빈 상태였고, 이후 주변의 흙에서 수습한 작은 알갱이를 사리로 추정하였다. 만일 帝釋精舍의 사리병이 감은사 출토품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화재 이후 초석을 열었을 때 수정병의 받침이 분리되어 사리가 보이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수정병의 사리가 없어져, 왕이 법사를 청하여 예를 표하고 다시 살펴보니 불사리 6개가 모두 병 안에 있었다는 기록의 내용은 종교적 神異일 수도 있지만 사리병의 형태에서 기인한 논란은 아니었는지 상상하게 된다.

진주는 보통의 광물 보석과 달리, 특별한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장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체의 광택과 빛깔이 중요하며, 구형에 가깝고 클수록 귀한 가치가 있다. 보통 난 집에 감싸거나 구멍을 뚫고 꿰어서 장식한다. 『舊唐書』에는 페르시아에서 보낸 물품 중에 ‘無孔眞珠’라는 언급이 보인다.<sup>63)</sup> 구멍 뚫지 않은 진주라고 각별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아, 오히려 구멍을 내어 가공한 진주도 교역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미륵사지 출토품은 모두 구멍 뚫린 형태로 남아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원석이 유입되었는지

63) 『舊唐書』卷198, 列傳 第148, 西戎, “波斯國……自開元十年至天寶六載 凡十遣使來朝 并獻方物 四月 遣使獻瑪瑙牀 九年四月 獻火毛繡舞筵 長毛繡舞筵 無孔眞珠.”

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진주의 경도나 강도가 높지 않아, 가공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원형의 진주가 유입되었을 수 있다. 국내에서 구슬을 뚫는 천공구는 일찍부터 사용되었고 삼한 시대 유물이지만 경도가 높고 단단한 수정을 천공구로 활용한 예가 남아 있다.<sup>64)</sup> 백제가 일찍부터 구슬류의 장식품 생산을 왕실수공업으로 정착시킨 점을 감안하면,<sup>65)</sup> 진주를 다룰 수 있는 가공기술도 보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백제가 원석을 외국에서 수입한 후 가공하여, 아름다운 공예품을 제작한 정황은 일본에 남아 있는 기록과 유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奈良 正倉院에 전하는 『東大寺獻物帳』의 〈國家珍寶帳〉에는 백제 의자왕이 일본 内大臣인 후지와라노 카마타리(藤原鎌足, 614?-669)에게 선물한 물품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sup>66)</sup> 内大臣은 645년 中大兄皇子(후에 天智天皇)와 함께 정변을 일으켜,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소가노 에미시(蘇我蝦夷)와 소가노 이루카(蘇我入鹿, 610?-645) 父子의 일족을 몰아내고 중앙집권적 정치 개혁인 大化改新을 이끌었던 인물이다.<sup>67)</sup> 또한 聖武의 부인 光明皇后의 祖父이면서, 聖武天皇의 曾祖父로 가계가 얽혀 있어, 의자왕에게 선물 받은 주자가 황실 소장품으로 계승될 수 있었다.

기록을 살펴보면 물품 내역 중에 犀角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유기물 보석인 서각은 코뿔소의 뿔에서 얻는 것으로, 과대나 갈집을 비롯한 다양한 기물을 만드는 공예 재료로 쓰였고 해독 작용에 탁월한 약재로도 선호되었다. 언급된 '犀角一具'는 두 개의 뿔이 연달아 있는 모양으로 설명하면서, 하나의 길이가 1尺3寸, 다른 것은 길이 6寸으로 적었다. 당시 1척을 29.7cm로 환산하면 대략 38.6cm와 17.8cm가 되고 무게는 3kg에 이른다.<sup>68)</sup> 그리고 나머지는 '白犀角一枚', '犀角一枚', '斑犀角一枚' 등으로 표시하였으며, 모두 7kg이 넘는 분량이다. '一具'와 '一枚'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을 볼 때, 전자는 犀角 원형 그대로이고 후자는 가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각은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수입품인데, 기록을 보면 적지 않은 수량이다. 백제가 당시 원석을

64) 『(선사·고대) 옥의 세계: 2013 복천박물관 특별기획전』(복천박물관, 2013), pp. 68-69.

65) 김창석, 「백제 왕실수공업의 성립과 생산체제」, 『백제연구』 45집(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7), pp. 6-7.

66) 『東大寺獻物帳』〈國家珍寶帳〉第4紙(北倉158), '赤漆觀木厨子一口 右百濟國王義慈進於内大臣 納物犀角一具, 重大五斤 二角連底 一角長一尺三寸 一角長六寸 白犀角一枚, 重大六斤八兩 長三尺一寸七分 本徑五寸五分 犀角一枚, 重大三斤六兩 長二尺 本徑五寸七分 斑犀角一枚, 重大一斤十三兩二分 長七寸 本徑五寸 白石鎮子十六箇, 師子形八 牛形六 兔形二 銀平脱合子四合, 各納菓子'

67) 『日本書紀』卷24, 天豐財重日足姬天皇 皇極天皇, "四年……六月丁酉朔甲辰 中大兄 密謂倉山田麻呂臣曰 三韓進調之日必將使卿讀唱其表 遂陳欲斬入鹿之謀 麻呂臣奉許焉 戊申 天皇御大極殿 古人大兄侍焉 中臣鎌子連 知蘇我入鹿臣 爲人多疑 晝夜持劍……使海夫養連勝麻呂 授箱中兩劍於佐伯連子麻呂與葛城稚夫養連網田曰 努力努力 急須應斬……是日 雨下潦水溢庭 以席障子覆鞍作屍 古人大兄 見走入私宮 謂於人曰 韓人殺鞍作臣 謂因韓政而誅"

68) 西川明彦, 「赤漆文觀木御厨子と(赤漆觀木厨子)」, 『正倉院紀要』 34号(2012), pp. 66-67.

수입하여 가공한 후 상당량을 소비하고 왕실의 선물로도 활용한 것을 알려준다.

의자왕이 선물한 주자의 納物 중에는 碁子가 들어 있는 銀平脱盒도 있는데, 正倉院 北倉에는 관련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바둑돌은 흰색, 검은색, 붉은색, 남색 등 네 종류로 구성되었으며(圖 11), 흰색은 石英이고 검은색은 蛇紋石으로 알려져 있다.<sup>69)</sup> 석영은 흔하게 얻을 수 있지만 사문석은 희귀한 광물의 일종이며, 모스 경도가 5-6으로 높은 경우에는 보석으로 사용한다.<sup>70)</sup> 근래 충남 부여군 외산면 지선리에서 사문석이 발견된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sup>71)</sup> 부여에서 채취되는 귀사문석은 진한 녹색이나 검은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上品으로 인정받는다. 흑색 바둑돌의 재료가 백제의 산물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

다른 두 종류의 바둑돌은 상아로 만들었다. 각각 붉은 색과 남색으로 곱게 물들인 후, 표면에는 꽃을 머금고 날아가는 새를 선각하여 장식했다. 상아 표면에만 염색을 입히기 때문에 문양을 새기면 바탕의 색이 드러나며, 때로 선각한 부분에 다른 색을 덧칠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법을 撥鏤라고 부른다. 正倉院 문서에는 ‘紅牙撥鏤尺二枚, 綠牙撥鏤尺二枚, 紅牙撥鏤算子百枚’ 등으로 언급된 기물이 많아, 撥鏤 기법의 유행을 알려준다. 백제가 동남아시아에서 상아를 수입하여 사용하면서,<sup>72)</sup> 표면에 장식을 덧붙여 화려한 공예품으로 완성한 것을 보여준다. 백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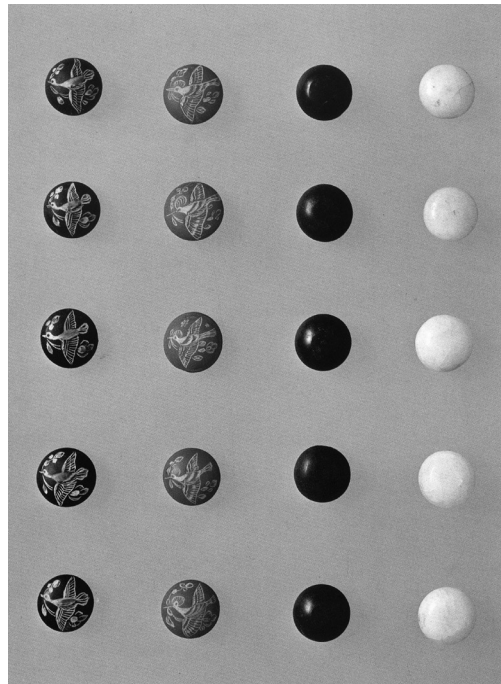


圖 11. 바둑돌, 日本 奈良 正倉院

69) 『正倉院展』(奈良國立博物館, 1993), p. 35.

70) 귀사문석으로 분류되는 변종은 뉴질랜드의 South Island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Delaware에서 양질의 원석이 소량 생산되는데, 현재는 고갈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71) 김원사, 「부여산 귀사문석에 대한 보석광물학적 연구」, 『한국광물학회지』 8권 1호(한국광물학회, 1995), p. 52; 여진영·김동환·안희진·윤상화·김원사, 「부여산 귀사문석육에 대한 광물학적 연구」, 한국지구과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pp. 245-250; Amarjargal Baatar, 「부여산 사문석육에 대한 광물학적 연구」(충남대학교 대학원 지질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참고.

72) 상아는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을 통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聖王이 일본에 扶南의 재물을 전해준 『日本書紀』의 기록을 앞서 언급하였고 중국 『梁書』 卷54 列傳第48 諸夷, 「扶南國……出金銀銅錫 沉香 象牙 孔翠 五色鸚鵡」에는 부남에서 상아가 산출된다고 기록하였다. 따라서 백제가 부남의 산물인 상아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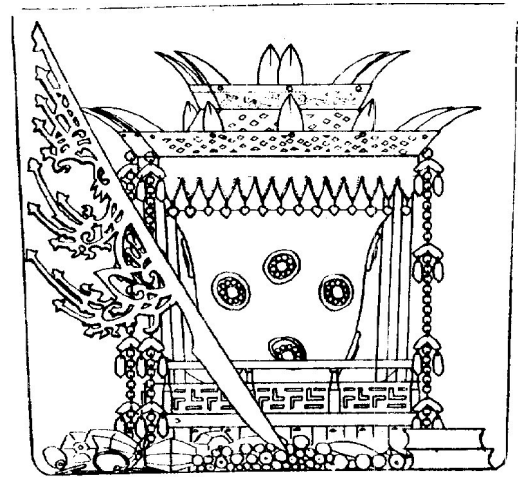
상이나 서각 등의 원석을 수입하여 가공한 과정은 미륵사지 진주의 수입과 장식에 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진주 장식은 미륵사지 이전 시기에는 찾아볼 수 없지만 후대의 유물로는 찾아볼 수 있다. 경상북도 칠곡 송림사 전탑에 모신 사리구는 내함으로 유리를 사용하였는데, 유물을 수습할 당시 사리기 외면에 작은 진주알이 원형을 이루며 장식되었다고 전한다(圖 12). 발굴 보고서에도 사리기에 부착되었던 진주알이 복원된 모습으로 발표되었지만(插圖 2),<sup>73)</sup> 외부 공기에 노출된 이후 장식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진주의 행방이나 부착되었던 원형을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진주 장식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와 함께 사리함에 공양품으로 납입된 銀製鍍金樹枝形裝飾도 주목된다. 관식처럼 가운데가 접히고 좌우대칭이며, 뿌리부분은 꽃을 수 있게 만들었다. 부여 능안골 36호분과 미륵사지 등에서 발견되는 백제 은제관식의 외형과 비교되는 유물이다. 때문에 송림사 사리구는 백제와의 친연성을 떠올리게 하며, 진주 장식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근래 알려진 통일신라 금동불입상의 광배에도 진주가 감장되어 관심을 끈다(圖 13). 1982년 중국 浙江省 寧波 天封塔 地宮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남송대 유물과 함께 출토된 금동불입상



圖 12. 〈유리 사리기〉, 경상북도 칠곡 송림사 전탑, 국립대구박물관



〈插圖 2〉 〈송림사 전탑 사리구 배치도 및 진주장식〉 (출처: 김재원, 『松林寺塔塔』, 『진단학보』 29·30호, 1996, p 22, 第18圖)

73) 김재원, 『松林寺塔塔』, 『진단학보』 29호·30호(진단학회, 1996), pp. 13-28(『韓國과 中國의 考古美術』(문예출판사, 2000), pp. 100-123 재수록).

은 2009년 현지 조사에서 통일신라 유물로 밝혀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sup>74)</sup> 천봉탑 출토품은 중대신라의 불상 양식을 따르면서도 존상과 대좌의 형식, 조각기법에서 하대 신라 조각의 특징을 간직한 것으로 연구되었다.<sup>75)</sup> 광배는 몸체에 비해 크게 자리하였는데, 화염과 덩굴 문양은 투각기법으로 만들어졌고 頭光과 身光의 원형 테두리를 따라 진주를 배치하였다. 알갱이가 일정하고 완전한 球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꽃잎 모양의 난집에 놓여 있다. 빛나는 보석 장식으로 인해 불상의 후광 효과는 더욱 부각된다. 미륵사지 사리공양품인 진주는 모두 구멍 뚫린 모양이지만 송림사 사리구나 불상의 광배는 구형 보석을 부착하거나 감장하는 방식으로 장식되었다. 진주는 점차 불교미술품의 주요 재료로 활용되었으며, 미륵사지 유물은 통일신라 진주 장식의 선구적인 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圖 13. <금동불입상>, 통일신라, 中國 浙江省 寧波 天封塔, 寧波市博物館

## V. 맺음말

사리 봉안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 중의 하나로, 사리를 담은 기물이나 공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재료와 기술이 동원된다. 변하지 않는 견고함과 아름다움, 재화의 가치를 두루 갖춘 보석은 사리구나 공양품을 만드는데 적절한 재료였을 것이며,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장엄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특히 사리공양품인 진주와 사리 대체품으로 추정되는 수정은 삼국시대 공예 문화를 알려주는 의미있는 발견이었다.

74) 동반 출토품과 함께 남송대 불상으로 전시되고 있었던 금동불입상은 寧波市博物館을 조사하던 동국대학교 최용천교수가 통일신라시대 불상으로 확인하고 국내에 소개하였다. (『연합통신』 2009년 3월 31일자 기사 참고)

75) 최성은, 『張保皋선단과 신라하대 불교조각』, 『선사와 고대』 32호(한국고대학회, 2010), pp. 23~28.

진주는 당시 明珠로도 불렸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최고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선호되었다. 미륵사지의 유물은 우리나라에서 진주를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로 의미가 깊다. 석탑의 조성연대인 639년을 고려하면 사리공에서 확인된 진주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의 실물 자료지만 상당한 출토 수량으로 볼 때 이전부터 장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진주가 언급된 5세기 초반 『三國史記』의 기록을 근거로 찾을 수 있었다.

백제시대 국내에서 진주를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페르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산출되는 진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진주는 한반도 남부 해안가에 서도 채취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존하는 문헌기록과 주변 정황으로 볼 때, 당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래가 없는 미륵사지의 진주 공양은 후원자인 沙屯 가문의 왕비와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백제의 주요 가문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왕비의 세력이 해양 무역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다량의 진주를 소유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이해하였다. 武王(재위 600~641)의 집권 말기, 왕비는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과시하고 향후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자 하는 기원을 담아 미륵사를 조성했던 것이다.

원석은 백제의 수준 높은 가공기술이 덧붙여져 비로소 아름다운 보석공예품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예를 일본 正倉院에 소장된 의자왕 관련 유물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수정이나 진주도 백제의 공예 기술로 더욱 활용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 사리기 외면이나 광배에 장식된 진주는 백제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정제 사리병의 제작도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로 이어지며, 이후 우리나라 사리장엄구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근래의 출토품을 통해 한국 공예사에서 백제가 차지하는 위상이 再考되고 있는데, 그 정점에 미륵사지 석탑 사리구를 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사리공양품에 보이는 보석 가운데 수정과 진주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수정은 三韓時代부터 이어져 온 국내 보석 장식의 중심이었고 삼국시대 불교 미술품의 새로운 재료로 선택되었다. 진주는 국제교역의 산물로 백제의 대외 교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후원자인 왕비와 관련한 흥미로운 가정도 제기해 보았다. 또한 수정과 진주 장식이 통일신라로 계승되면서, 백제가 후대의 공예 재료와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점도 분명해 보인다. 향후 과학적 재질 분석이 수반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영향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백제(百濟, Baekje), 미륵사(彌勒寺, Mireuksa), 사리(舍利, Śarīra), 진주(眞珠, Pearl), 수정(水精, 水晶, Crystal)

투고일 2016년 9월 12일 | 심사기간 2016년 10월 11일~2016년 10월 17일 | 게재확정일 2016년 10월 19일

## 참고문헌

### 【史料】

- 『高麗史』
- 『高麗史節要』
- 『舊唐書』
- 『唐六典』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續日本紀』
- 『新唐書』
- 『新增東國輿地勝覽』
- 『日本書紀』
- 『朝鮮王朝實錄』

### 【國文論著】

- 강봉룡, 「고대 ~ 고려시대의 海路와 섬」, 『대구사학』 110집, 대구사학회, 2013, pp. 1-33.
- 강종원, 「백제 沙氏勢力의 중앙귀족화와 재지기반」, 『백제연구』 45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7, pp. 19-36.
- 김원사, 『보석학』, 우성, 2004.
- 김재원, 「松林寺博塔」, 『진단학보』 29·30호, 진단학회, 1996, pp. 13-28.
- 김창석, 「백제 왕실수공업의 성립과 생산체제」, 『백제연구』 45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7, pp. 1-17.
- 무함마드 간수, 『新羅, 西域交流史』, 단국대학교출판부, 1992.
- 박남수, 「백제 대외교역상의 金鋌과 益山」, 『사학연구』 98호, 한국사학회, 2010, pp. 167-194.
- 송일기, 「京都 靑蓮院藏 觀世音應驗記 所收 百濟記事의 檢討」, 『서지학연구』 30집, 한국 서지학회, 2005, pp. 129-149.
- 신 숙, 「한국 고대 보석장식 공예품과 국제교류」,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 \_\_\_\_\_, 「한국 미술에 보이는 보석재료와 장식」, 『金銀寶貨』, 삼성미술관, 2013, pp. 135-145.
- 여진영·김동환·안희진·윤상화·김원사, 「부여산 귀사문석옥에 대한 광물학적 연구」, 한국지구과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pp. 245-250.
- 이귀영·박대남,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의 의의」, 『백제 불교문화의 寶庫 미륵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pp. 104-128.
- 이병호, 「백제 사비기 익산 개발 시기와 그 배경」, 『백제연구』 61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5, pp. 69-105.
- 이송란, 「미륵사지 금제 사리호의 제작기법과 문양 분석」,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9, pp. 185-204.
- \_\_\_\_\_, 「백제 미륵사지 서탑 유리제사리병과 고대 동아시아 유리 제작」, 『미술자료』 80호, 국립중앙박물관, 2011, pp. 17-43.

- 이한상, 「미륵사지 석탑 출토 은제관식에 대한 검토」, 『신라사학보』 16호, 신라사학회, 2009, pp. 119-147.
- \_\_\_\_\_, 「왕흥사지 목탑과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의 비교」, 『역사와 담론』 54집, 호서사학회, 2009, pp. 49-72.
- 정인성·양아림, 「원삼국시대의 수정제 다면옥」, 『한국 선사, 고대의 옥문화 연구』, 2013, pp. 151-172.
- 정진원, 「익산 미륵사지 서탑 〈金製舍利奉安記〉 해독과 쟁점들」, 『동악어문학』 58집, 동악어문학회, 2012, pp. 243-279.
- 주경미,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의 구성과 의의」, 『백제연구』 59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14, pp. 73-112.
- \_\_\_\_\_, 「백제의 사리신앙과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대발견 사리장엄 미륵사의 재조명』,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9, pp. 159-184.
- 주보돈, 「미륵사지출토舍利奉安記와 백제의王妃」, 『백제학보』 7호, 백제학회, 2012, pp. 31-55.
- 한송이, 「왕흥사지와 미륵사지 사리공양품의 재검토」, 『백제 사리장엄과 동아시아 불교문화』 국제학술심포지엄, 2015, pp. 65-80.
- 황수영, 「百濟帝釋寺址의 研究」, 『韓國의 佛敎美術』, 同和出版公社, 1974, pp. 128-139.

#### 【日文論著】

- 도묘 미호코(道明三保子), 「ササンの連珠圓文錦の成立と意味」, 『深井晋司博士追悼シルクロード 美術論集』, 吉川弘文館, 1987, pp. 153-176.
- 니시카와 아키히코(西川明彦), 「赤漆文觀木御厨子と〈赤漆觀木厨子〉」, 『正倉院紀要』 34号, 2012, pp. 53-70.
- \_\_\_\_\_, 「木画紫檀碁局と金銀亀甲碁局籠」, 『正倉院紀要』 35号, 2013, pp. 1-18.
- 『佛舍利と寶珠』, 奈良國立博物館, 2001.
- 『正倉院』, 奈良國立博物館, 毎年特別展示圖錄.

#### 【英文論著】

- Grande, Lance & Augustyn, Allison. *Gems and Gemston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 Schafer, Edward H. *The Golden Peaches of the Samarkand*.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 Watt, James C. Y., and Prudence Oliver Harper. *China: dawn of a golden age, 200-750 AD*. New York: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4.

#### 【圖錄·報告書】

- 『감은사지 동삼층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 김재원·윤무병, 『감은사지발굴조사보고서』, 을유문화사, 1961.
-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특별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3.
- 『백제 불교문화의 寶庫 미륵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 『百濟 王興寺』, 국립부여박물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8.
- 『佛舍利信仰과 그 莊嚴』, 통도사성보박물관, 2000.

『佛舍利莊嚴』, 국립중앙박물관, 1991.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4.

『朝鮮古蹟圖譜』, 朝鮮總督府, 1916.

## &lt;Abstract&gt;

## International Trade and Gems Found in the Śarīra Deposits in the Mireuksa Stone Pagoda of Baekje

Shin Suk\*

A variety of objects found with the *śarīra* deposits in the Baekje-era Mireuksa Stone Pagoda at Iksan in Jeollabuk-do Province have been verified as offerings. These objects are thought to have been offered by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śarīra* enshrinement rituals, and appear to be possessions that were highly valued in their lives. They include gemstones like quartz, pearl, agate, jade and amber. Particularly noteworthy are over 800 pearls, which had very rarely been excavated prior to this, and some 62 pieces of quartz separately held inside the gold *śarīra* reliquary in the shape of a jar along with the broken pieces of inner glass bottle, both of which were contained inside the gilt-bronze, jar-shaped *śarīra* reliquar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reasons and background which led to such large quantities of quartz and pearls being deposited inside the stone pagoda and to consider the conditions of international trade in relation to the gems' origins.

*Śarīra* enshrine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ituals in Buddhism, and thus *śarīra* containers and offerings were created using the highest-quality materials and skills. Gemstones of timeless strength, beauty and rare value would have been considered appropriate materials for *śarīra* reliquaries or offerings, and indeed, gems were a crucial part of the reliquary at Mireuksa Stone Pagoda. Pearls, also called *myeongju* (明珠) at the time, had long since before been favored as gems that symbolized the highest authority and position in both the East and West. The pearls recovered from the Mireuksa Stone Pagoda are the earliest, tangible examples that we know, considering that the pagoda is dated to 639. However, the large quantity of the pearls suggests that pearls could have been used in decorations predating the Mireuksa Stone Pagoda, which is also supported by the records of the early 5th century text in *Samguksagi* (三國史記,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containing a reference to pearls.

Pearls were presumed to have been produced on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based on textual records and given circumstances, there is a slightly higher possibility that pearls were brought in from Japan or Southeast Asia during the Baekje period. The offering of pearls at Mireuksa Temple is without precedent, and reviewed in the context of the queen, a member of the *Sataek* (沙毛) family and a patron of the temple. The queen belonged to one of Baekje's prominent families and wielded a tremendous amount of power. It is presumed that the *Sataek* family had the authority to involve themselves in maritime trade, and a focus on that possibility provides the background for understanding how such large quantities of pearls came into their

---

\* Visiting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possession. The queen built Mireuksa Temple toward the end of the reign of *King Mu* (武王, r. 600-641) as a display of her wealth and power while seeking to make a new leap forward.

Quartz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gems that can be found in Korea, and is mined throughout the Gyeongsang-do and Jeolla-do provinces. Processing techniques for quartz began developing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quartz was newly adopted in decorating Buddhist artworks. The clear and bright quartz commonly known as rock crystal was used to make *śarīra* bottles, while rare gemstones like amethyst were used as substitutes for *śarīra*. The production of quartz *śarīra* bottles continued throughout the Unified Silla, Goryeo, and Joseon periods and established itself as a significant feature in the tradition of Korea's *śarīra* reliquaries.